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와 과제

□ 회담의 성과와 문제점

- (의미) 혼미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회담 재개는 남북간 대화 채널 복원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의지를 대내외 과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성과) 부문별 의제와 향후 후속 실무 접촉 일정의 명시로 당국간 대화의 연속성과 정례화, 실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경협 부문 9 개항의 합의는 경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문제점) 그 동안의 미결 안건 추진에 대한 합의일 뿐, 해결하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들은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실천력이 담보된 것은 아님

□ 향후 전망과 과제

- (전망)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를 위한 실무 접촉은 활성화될 것이나, 식량과 전력 지원 등의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임
  - 북한은 通美接南과 通南接美의 병행 전략을 구사하면서 보다 많은 경제 원조를 확보하려는 실리주의 노선을 추구해나갈 것이나, 여소야대 정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운영의 폭을 제약할 것임
- (과제) 남북 양측은 상생(win-win)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원칙 하에 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 성과를 거둠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임
  - 북측은 '선언적·형식적' 합의보다는 '실천적·구체적' 합의와 이의 이행을 위한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며, 지원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남북 문제 해결의 주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남측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지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견지하며, 여론 선도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성과와 과제

회담의 의미와 주요 내용

- (의미) 혼미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회담 재개는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 의지를 대내외 과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정치적) 성실한 자세로의 회담 참석과 6.15 공동선언에 대한 북측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소강 상태의 북미 관계와 미국의 테러 참사, 북러 및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남북 대화 권유, 8.15 평양 축전의 불상사와 DJP 공조 붕괴 등 최근의 국내외 정세 변화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 경협 확대 부문의 합의 사항이 많음으로써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의지와 방향성을 예시해주었음
  - (사회·문화적) 민간 차원 교류 협력 지원, 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 해결이 용이한 부문부터 우선 해결하려는 실사구시적 접근 방식이 돋보였음

제5차 장관급회담 합의 사항	
주요 내용	일 정
1. 당국간 대화·협력 발전과 민간급 접촉의 적극 지원	
2.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10. 16~18.
3.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 협력 확대 조치	
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빠른 시일내 개통	- 개성공단 우선 연결
② 개성공단 추진 실무 접촉과 공사 착수	- 빠른 시일내
③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	- 10. 4.
④ 남북·러시아간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 검토	- 일정 언급 없음
⑤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 통과를 위한 해운 실무 접촉 개최	- 빠른 시일내
⑥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현지 조사 착수	- 11월중
⑦ 4대 경협합의서 발효	- 빠른 시일내
⑧ 북측의 일부 동해어장 공동 이용을 위한 실무 접촉 개최	- 빠른 시일내
⑨ 상기 경협 논의를 위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 10. 23~26.
4. 태권도 시범단 상호 교환	- 10월중 방남, 11월중 방북
5.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10. 28~31.

회담의 성과와 문제점

- **(성과와 효과) 향후 일정의 명시로 당국간 대화의 연속성과 정례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경협 부문 9 개항의 합의는 경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실천 가능성 증대) 부문별 의제와 후속 실무 접촉 일정을 명시함으로써 실제 본협상까지의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천 가능성이 높아졌음
  - (현실 반영) 합의문에서의 평화 보장,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대화 협력 등의 강조는 최근의 국제 정세와 남한 정국 현황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실리에 바탕을 둔 북측의 현실적인 접근 자세라고 할 수 있음
  - (연계성 강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복원과 개성단지 착공의 연계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직교역 추진과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제고될 것임
  - 특히, 금강산 육로 관광과 함께 동·서 양측의 수송로 연결은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과 발효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연결되면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한반도 평화 안정과 공존·공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문제점) 그 동안의 미결 안건 추진에 대한 합의일 뿐, 해결하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들은 이번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실천력이 담보된 것이 아님**
  - 대북 식량과 전력 지원, 비전향 장기수의 추가 송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은 이번 합의문에서 누락되었으며, 경의선과 금강산 육로 개통, 경협합의서 발효 등 대부분의 경협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음
  - 특히, 쌍방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남북 전력 협력 문제 논의에 소극적이었음
  - 제3항의 경협 문제 합의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구체적 세부 실천 과제 결정 없이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실천력보다는 합의 성과 과시를 위한 합의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음
  - 북측의 이번 회담 참석은 미 테러 참사로 인해 북미 관계 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通美接南'에서 '通南接美'으로의 일시적 전술 변화일 수도 있어, 민감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소강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음

향후 전망과 과제

- **(전망)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를 위한 실무 접촉은 활성화될 것이나, 식량과 전력 지원 등의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임**
  - 이번 회담은 북중·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회담의 연속성과 실천 가능성이 높아 향후 후속 실무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예상됨
  - 또한, 최근의 국제 정세 추이로 보아 북한은 '通美接南'과 '通南接美'의 병행 전략을 구사하면서 보다 많은 경제 원조를 확보하려는 실리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임
  - 그러나, 북측의 최대 관심사인 식량 및 전력 지원 문제가 남아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후속 실무 회담의 난항이 예상됨
  - 더욱이 집권 후반기의 우리 정부는 與小野大와 국내외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대북 정책 결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과제) 남북 양측은 相生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원칙 하에 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 성과를 거둠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임**
  - (북측) '선언적·형식적' 합의보다는 '실천적·구체적' 합의와 이의 이행을 위한 성실한 자세가 요망되며, 지원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남북 문제 해결의 주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또한 남측이 바로 북한 경제 회생의 최적 파트너이며,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남측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호혜적 입장에 의한 공동의 이익 창출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남측)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지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견지하며, 여론 선도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방적인 대북 지원도 금물이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와 물밑 협상도 금물이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다는 자세로, 실천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북측과 국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대북 지원 대가로 북측에게 성급하게 개혁·개방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임(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

홍순직 연구위원 sjhong@hri.co.kr ☎ 3669-4082